

# 古書目錄의 方向

金 致 雨\*

##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古書目錄의 當面問題와 對策 |
| II. 目錄의 一般的 傾向    | V. 結 論             |
| III. 古書目錄의 現狀과 傾向 |                    |

### I. 緒 論

각 도서관에 있어서 일반 도서의 목록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統一된 樣相을 띠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 갈 수록 차이는 심해지지만 全体的인 줄기는 大同小異하다. 이것은 오늘날 圖書가 書誌의 으로 特記 할만한 것이 별로 없고, 각 事項을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일반 도서의 目錄規則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KCR, NCR, AACR 따위의 根本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어느 目錄規則을 사용하던지 目錄作成에 색다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圖書館에서 사용하는 目錄規則을 보면 東書는 거의 韓國目錄規則이요, 洋書는 英美目錄規則이다. 물론 그 도서관 傳統의 方式으로 目錄을 作成하는 곳도 약간 있으나 그것이 다른 도서관의 目錄作成에 영향을 미칠만큼 問題性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도서관에서는 대세에 따라서 다른 도서관처럼 목록을 작성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目錄作成은 最近에 ISBD의 등장으로 서서히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目錄規則이 ISBD의 記述方式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ISBD의 방식을 채택한다면 목

\* 釜山女大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록의 樣式은 더욱 統一된 양식을 띄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ISBD는 圖書에 나타나 있는대로 記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事項 앞에는 固有記號를 부여하므로 變則이나 便法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規則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目錄作成은 ISBD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많아 질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目錄의 一般的인 흐름이다.

그러므로 古書目錄도 이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古書는 書誌적으로 特記할만한 것이 많으므로 目錄작성에 있어서 도서관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각종 古書 目錄規則이나 도서관의 所藏古書目錄을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目錄규칙이 변용이나 편법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만일 古書目錄이라 해서 그런 方向으로 계속 나간다면 目錄界의 異端兒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ISBD의 方式을 古書目錄에 적용하여서 一般圖書의 目錄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古書目錄의 特殊性을 살릴 수 있도록 試圖하여 보고자 한다.

## II. 目錄의 一般的 傾向

오늘날 우리나라 目錄의 一般的 傾向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使用되는 KCR과 AACR의 태동부터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目錄規則의 제 1차적인 기초자료는 美國圖書館協會 目錄規則 1949년판 및 이의 추가 개정판, 제 2차적인 자료는 버티칸目錄規則 1948년판, 제 3차적인 자료는 朴奉石編 東書編目規則 1948년판, 그리고 제 4차적 자료는 日本目錄規則 1952년판이었고, 기타 자료로는 1961년 10월 불란서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國際目錄會議에서 여러 결정된 원칙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韓國目錄規則은 1964년 1월에 初版이 발행되고,

1966년 4월에 修正版이 발행되어 여러 도서관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目録規則의 근본이 된 자료는 美國圖書館協會 目録規則으로 그것은 英美目録規則의 제정에도 제 1차적인 기본자료가 되었다. 즉, 英美目録規則은 1949년 출판된 미국도서관 협회의 著者 및 書名記入目録規則 2판과 역시 같은 해에 출판된 미국의 회도서관의 記述目録을 개정하여 한편으로 합쳐서 1967년에 발행한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서 세계각국으로 전파되어 두루 사용되었다. 그후 ISBD의 등장으로 제Ⅱ부중 제6장에 관한 규칙을 이에 맞추어 1974년에 개정판을 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韓國圖書館協會에서 韓國目録規則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곧 그것의 개정판이 발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이것이 발행되면 여타 目録規則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은 ISBD에 의해서 개정된 AACR을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수립했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계 여러나라의 目録規則이나 目録作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은 自明하다. 이미 日本에서도 ISBD에 의해서 개정된 日本目録規則豫備版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여러 나라의 目録規則이 ISBD에 준거하여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古書目録規則도 목록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古書目録의 경향은 어떠한가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 Ⅲ. 古書目録의 現實과 傾向

고서목록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띠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각종 고서목록규칙과 소장고서목록을 보면 될 것이다.

#### A. 古書目録規則

새로운 도서관학의 思潮가 수입되기 전의 것으로 도서관학의 개척자

朴泰石씨가 編한 東書編目規則이 있다. 이것은 1948년 國立圖書館에서 50면에 불과한 소책자로 書名을 主記入으로 하고 있으며, 新書와 古書를 함께 정리할 목적으로 편찬된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25 동란후 西歐의 새로운 圖書館學이 드러오므로써 사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생략하고, 그후 현대 도서관학의 영향으로 편찬된 각종 古書目錄規則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므로 피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나고 있는 著者の 歷朝表示位置, 版本表示位置, 刊年表示方式, 版式表示位置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좀 세부적인 것은 뒤에 나오는 古書目錄의 當面問題와 對策에서 다루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後日의 單行本 編纂時로 돌리고자 한다.

### 1.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千惠鳳 著. 프린트판. 서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2. 243p. 本書는 最初의 古書目錄規則이라 할 수 있으며, 그후 古書目錄作성과 여타 目錄規則 제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歷朝는 標目的 生歿年 다음에 圓活弧로 묶어 表示하며, 刊年은 그 圖書에 나타난 樣式대로 記載하고 있다. 版本은 版次事項의 위치에 記載하고, 版式은 對照事項의 크기 다음 부터 記載하고 있다.

예) 남 공철 (南公轍) 1760-1840 (朝)  
金陵集. 聚珍字本. 嘉慶 20 [1815]  
24卷 12冊. 32cm. 匡郭 28×15.2cm.  
四周單邊. 10行 20字. 有界. 黑口.  
上魚尾.

### 2. 古書目錄規則

白麟 編著. 프린트판. 서울,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1966. 95p. 本規則은 編著者가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司書課長으로 古書整理를 지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한 것이다.

歷朝는 記入體의 著者表示 다음에 圓括弧로 묶어 記載하고, 刊年은 王의 廟號나 諡號로 바꾸어 記載하고 있다. 版本은 對照事項의 挿圖表示 다음에 記載하고, 版式은 註記事項의 맨 처음에 記載하고 있다.

예) 강 석경

喚眠公集, 姜 慶(朝鮮) 著.

[刊年未詳]

4冊, 古活字本(後期木活字) 30 × 20.2 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2.4 × 15 cm.

10行, 1行20字. 版心: 上黑魚尾.

### 3. 古書分類目錄法(下)

千惠鳳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224p. 本書는 前記한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를 대폭 개정증보한 책이다.

歷朝는 標目的 바로 뒤에 圓括弧로 묶어 기재하고, 版本은 역시 版次表示의 위치에 기재하고 있다. 刊年은 王의 廟號나 諡號로 바꾸어 기재하고, 版式은 대조사항의 삽도표시 다음부터 기재하고 있다.

예) 권 두경(조선) 편.

退陶先生言行通錄, 權斗經編.

木板. 英祖 8(1732)

8卷4冊, 四周單邊, 半郭 22 × 14 cm.

有界, 半葉 10行 20字. 內向

二葉花紋魚尾. 31 cm. 綉裝.

### 4. 古書目錄規則

拙編. 프린트판. 釜山, 釜山女子專門學校, 1973. 117p. 本規則은 필자가 國立中央圖書館에서 古書整理 責任者로서 所藏古書目錄을 발간하기 위하여 마련한 목록작성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한 것이다.

歷朝는 記入體의 저자표시 앞에 圓括弧로 묶어 기재하고, 版本은 판차사항에 기재한다. 刊年은 王의 廟號나 諡號로 바꾸어 기재하고, 版式은 대조사항의 삽도표시 다음부터 기재한다.

예) 김 상희

石菱集(朝鮮) 金昌熙 著.

木活字本. 光武 2(1898)

12卷3冊. 四周單邊, 半郭 21.2 × 14 cm.  
 10行20字, 註雙行. 上白魚尾.  
 30.3 × 20 cm.

### 5. 古書編目規則

拙編. 서울, 景仁文化社, 1975. 149p. 본 規則은 필자가 講議用으로 편찬한 것인데 독단적인 方法이 많아서 다른 목록과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우므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歷朝는 記入體의 저자표시 앞에 원괄호로 묶어 기재하고, 版本은 판차사항에 표시한다. 刊年은 王의 廟号나 諡号로 바꾸어 기재하고, 版式은 대조사항의 삽도표시 다음부터 기재한다.

#### 예) 변 계량

春亭先生統集(朝鮮) 下季良著  
 木板本. 靑松, 屏嶺書院 [刊年未詳]  
 12卷6冊. 四周雙邊, 半郭 21 × 14.7 cm.  
 10行20字. 內向2葉花級魚尾.  
 30.6 × 19.6 cm.

### B. 所藏古書目錄

소장고서목록은 책자목록도 있고 카아드목록도 있으나 여기서는 누구나 쉽게 접하여 볼 수 있는 책자목록만을 다루고자 한다. 취급 대상은 현대 도서관학의 영향을 받고 나서 整理되어 發刊된 것으로 古書目錄作成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다.

#### 1. 澗松文庫漢籍目錄

韓國民族美術研究所 編. 서울, 1967. 23p. 본서는 한 국민족미술연구소에 소장된 故澗松 全耆弼氏의 古書를 대상으로 하여 目錄을 작성한 것이다.

서명을 기본기입으로 하였는데 목록 작성의 일반적인 순서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목록학적인 가치는 희박하나 書誌事項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준다. 각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어느 사항에 속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 예) 家禮 (表紙書名: 朱子家禮) 7卷 2冊.  
 朱 ( ) 編 刊記: 己卯四月  
 日芸閣板印  
 (活) (改鑄甲寅字) 22 × 33.5  
 四周雙邊 半郭: 17.6 × 25.6 有界  
 10行 17字 細註雙行 16字 白口 花級尾上

## 2. 韓國古書綜合目錄

大韓民國國會圖書館 編. 서울, 1968. ix, 1439, 72p. 本書는 尹炳泰氏가 1958년부터 조사한 國內外에 散在해 있는 韓國本古書 37,000여종의 목록을 1966년에 국회도서관에서 인수하고, 함께 수집에 종사한 金英美氏를 초빙하여 계속 追加補完해서 1968년 편찬간행한 것이다.

書名을 標目으로 하였으며, 기재순서는 목록 작성의 일반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나, 목록양식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歷朝는 著者名 앞에 캄마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朝鮮以後 사람의 것은 생략하였다. 刊年은 王의 廟號나 諡號로 바꾸어 기재하고, 版本은 출판사항의 刊行年 다음에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版式은 주기사항의 맨 처음에 기재하였다.

- 예) 心經附註  
 宋, 真德秀 撰, 明, 程敏政 註.  
 [序: 明宗 21年 (1566) 木板本. 4卷 2冊.  
 函, 35.4 × 22.7cm 四周雙邊 半匡: 23.7  
 × 17cm. 有界 10行 17字 版心: 上下花紋  
 魚尾

## 3. 李朝書院文庫目錄

李春熙 編.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9. 184p. 本書는 흥선대원군 집정 당시 毀撤되지 아니한 47個處의 書院中 조사가 가능한 남한에 현존하는 27個處의 書院에 소장된 古書를 대상으로 하여 目錄을 作成한 것이다.

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하였으며 三段式 目錄樣式을 취하였다. 歷朝는 記入體의 저자표시 다음에 원팔호로 묶어 기재하고, 版本은 판차사항에 기재

하고 있다. 刊年은 王의 廟号나 諡号로 바꾸어 표시하고 있으며, 版式은 대조사항의 삽도표시 다음부터 기재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책의 크기를 기재하지 않는다.

- 예) 西厓先生文集 柳成菴(朝鮮)著.  
木板本 [跋: 仁祖 20年(1642)]  
20卷 10冊 白口. 上下內向 2葉花  
紋魚尾 四周雙邊 有界 11行 21字  
半郭: 16.9 × 20.8cm.

#### 4. 石洲文庫目錄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編. 서울, 1973, 70p.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一個人文庫의 古書를 대상으로 하여 目錄을 작성한 것이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소장고서목록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著者名을 기본기입으로 하고 있으나 배열은 書名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기재순서는 韓國古書綜合目錄과 거의 같으나, 目錄樣式은 目錄의 일반 원칙대로 되어 있는 점이 그것과 다르다. 歷朝는 기입체의 저자 표시 다음에 원괄호로 묶어 기재하고 있으며, 刊年은 王의 廟号나 諡号로 바꾸어 표시하고 있다. 版本은 출판사항의 맨 마지막에 기재하고, 版式은 주기사항의 맨 앞에 기재하고 있다.

- 예) 권 이생, 편.  
史要聚選 權以生, 編. [出版事項未詳]  
木板本.  
9卷 4冊. 20.4 × 15.8cm.  
四周單邊, 半匡: 17.2 × 12.5cm.  
有界. 10行, 小字雙行 32字. 版心: 上下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이상의 고서목록규칙과 소장고서목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서목록의 양식은 실로 多樣하다. 그래도 여기에서 言及된 것은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이다. 만일 여타 고서목록을 일일이 다 열거한다면 그 樣式은 실로 千差萬別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書名, 著者, 卷數만 기재된 목록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대로의 方式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간



단한 事項이라도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이것이 바로 古書目録의 現實이오 傾向이라 할 수 있다.

#### IV. 古書目録의 當面問題와 対策

고서목록이 各樣各色인 것은 목록의 統一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목록의 통일은 세계 도서관계의 염원이다. 목록이 통일되면 특히 館外業務에 일대 革新을 가져 오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등장한 것이 ISBD이다.

ISBD의 目的은 書誌記述에 있어서 記述事項의 表示方法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테두리(배대)를 정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出版物들의 효율적인 국제 유통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즉, ① 한 국가내에서 作成한 書誌記録이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言語를 사용하는 利用者에 의하여 쉽게 理解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② 각국에서 작성한 서지기록들이 여러 종류의 目録과 파일 속에 통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③ 筆写되었거나 印刷된 서지기록이 최소한의 편집을 거쳐 機械可讀의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目録規則들이 ISBD의 方式을 도입하려고 서둘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서목록도 ISBD의 方式에 맞추어 개편한다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古書目録의 方向인 것이다. 고서목록이라고 해서 종래의 方法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古書目録은 一般圖書目録과 달라서 ISBD의 方式을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前述한 바 있듯이 우리의 古書는 서지학적으로 特記할만한 것이 많으나 目録에 기재사항이 없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ISBD의 方式을 적용시키자면 이것들의 整備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ISBD는 각 사항마다 先行된

부호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종래의 형식적이고 예외적인 記述도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그 方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A. 基本記入의 統一性

古書와 一般東書의 目錄은 一元化가 가능하다. 標目的 表記文字가 동일하고 또 標目的 語彙가 古典의이기는 하나 東洋的인 것이므로 同質성이 많기 때문이다. 目錄이란 一元化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再言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東書目錄의 標目を 로마나이즈하여 洋書目錄과 혼합 배열시키는 방법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목록의 일원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목록이 일원화되면 검색이 쉽고, 원서와 번역서가 前後에 배열되므로 사무상이나 열람상으로 아주 편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東書와 古書의 目錄도 일원화시키면 그것처럼 편리하여 진다.

이와 같이 고서목록과 동서목록을 일원화시키자면 先決되어야 하는 것이 基本記入의 통일이다. 지금까지 이점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고서목록과 동서목록은 共存이 가능하면서 別居를 해온 것이다. 이를테면 족보의 기본기입은 韓國目錄規則에 의하면 書名을 기본기입으로 하지만, 一般古書目錄規則에 의하면 統一標目を 정하여 기본기입으로 하는 것이 일례이다. 예를들면 善山金氏族譜의 기본기입은 韓國目錄規則에 의하면,

善山金氏族譜

로 되고, 一般古書目錄規則에 의하면 대체로,

족보. 선산김씨.

善山金氏族譜

로 된다. 이와 같이 기본기입이 달라지니까 目錄의 一元化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方法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의 方法을 취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많이 사용되는 韓國目錄規則의 方法을 좇는 것이 시행에

우리가 적어서 좋을 것이다. 물론 특수한 古書로서 基本기입선정규정이 韓國目錄規則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새로운 基本기입을 내어 주어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分類表를 사용하다가 해당 항목이 없으면 展開하거나 插入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 정한 방식으로 일관하여 基本기입으로 삼는다는 古서목록과 東서목록의 단일화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 B. 歷朝表示의 位置

東書目錄에서 저자의 역조표시는 同姓同名의 저자로서 生歿年만으로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것으로 著者名標目的 生歿年 다음에 圓괄호로 묶어서 해준다. 그러나 생몰년이면 동성동명의 저자는 거의 식별이 되므로 실제로 역조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古서목록에서 역조표시는 동성동명의 저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과 한국인의 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성명, 제왕명, 승명 등은 구성형식이 같으므로 역조표시가 없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뿐만아니라 동양에 있어서는自古로 학문전반에 걸쳐서 역조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역조표시를 해주는 것이 편리하다. 이런 까닭에 古서목록에서 역조표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표시 위치는 일정치 않다. 그것을 살펴보면 ㉠ 標目的 바로 뒤에 표시하는 것 ㉡ 記入體의 저자표시 앞에 콤마(,)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 ㉢ 記入體의 저자표시 앞에 圓괄호로 묶어서 표시하는 것 ㉣ 記入體의 저자표시 다음에 圓괄호 묶어서 표시하는 것 따위가 있다. 이 중 ㉢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그 방법을 좇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의 역조표시를 한다 해도 그것이 저자명에 종속이 되어 독립된 사항이 되지 못하므로 ISBD의 부호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古서목록에서 꼭 필요한 역조표시를 일반 목록으로 인한 선입감 때문에 생략하지 말고 해주면 좋을 것이다.

### C. 版本과 版式表示의 位置

古書目錄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이것만 해결되면 고서목록의 統一도 가능하다고 본다.

고서목록의 類形은 版本表示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판본표시의 위치는 대별해서 판차사항과 대조사항에 된다. 그러므로 고서목록의 유형도 크게 양분된다. 즉, 판본표시를 판차사항에 하는 목록은 版式을 대조사항에 기재하고, 版本을 대조사항에 하는 목록은 版式을 註記事項에 기재한다.

판본표시를 판차사항에 하는 理由는 판차란 결국 同書異板의 刊行된 次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판본을 가지고 판차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對照事項에 하는 이유는 對照識別에는 판본이 제일 중요하므로 대조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본을 出版事項의 맨 마지막에 넣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책을 活版이나 木版 등으로 印出했기 때문에 出版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출판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나 이와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 위치가 애매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板本을 주기사항으로 돌리면 이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記入體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무엇이나 주기사항에 기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본은 고서목록에서 아주 중요시되므로 기재는 주기사항중 맨 처음에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마이크로필름목록에서 “마이크로필름”이란 것을 제일 먼저 주기사항에 해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고서목록에서 “판본”은 마이크로필름목록에서 “마이크로필름”과 상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판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판식표시의 위치를 살펴 보자. 版式이라 함은 四周辺欄, 半葉匡郭의 크기, 界線, 半葉行數 및 每行學數, 版口, 魚尾등을 말한다. 판식표시는 판본표시와 마찬가지로 고서목록에서 중시되어 왔으나 기재위치는 통일되지 못하고 대조사항과 주기사항으로 양분되고 있다. 즉, 대조사항의 삽도표시와 도서의 크기 사이 및 주기사항의

맨 처음에다 표시하고 있다. 판식은 성격상 대조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나 고서목록에만 있는 현상이므로 ISBD의 부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사항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판본과 판식은 어디에다 표시하던지 기재위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령 어떤 책이 있으면 活字本이든지 木版本이든지 四周辺欄, 界線, 魚尾, 등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별개로 취급하면 정확한 識別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서를 鑑識하고 年代를 考証하는데 版本과 版式을 별개로 분리시켜서 다루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많은 착오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관련시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기재위치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그것은 맨 처음의 주기사항으로 돌리되 중요도를 참작해서 版本을 먼저 기재하고, 이어서 版式을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 이 양자를 한개의 주기사항으로 취급하면 목록의 번잡성을 피할 수 있고, 또 카아드의 스페이스를 절약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서목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으며, 다른 도서목록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 D. 其 他

古書目錄의 일반적인 결함은 예외적인 규정을 많이 두는 것과 잡다한 사항을 너무 많이 기재하는 점이다.

界線이나 魚尾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족할 것인데 “無界”나 “無魚尾”나 기재하는 것은 너무 예외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界線은 반대로 있으면 다수라고 하여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有界를 無界로 오인할 염려가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無界라고 기재되는 것이 별로 없으므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有界라는 것을 빨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목록에서 挿圖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 바와같이 고서목록에서도 界線, 魚尾 등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족할 것이다. 또 저자의 歷朝表示에도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 李朝나 韓國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데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동일목록상의 저자표시란에 기재되는 각저자의 歷朝가 新羅, 高麗, 元, 明 등의 사람은 기재되고 李朝나 韓國 등의 사람은 기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조라서 기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빠뜨려서 기재하지 않았는지 분명치 못하며,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아울러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기재하려고 하는 점도 시정되어야 좋은 것이다. 이를테면 完秩이 아니면 권차사항이나 대조사항에 소장표시란 하면 되는데 구태여 대조사항의 책수표시 다음에다 원괄호로 묶어 “零本”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번잡성만을 초래하게 되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서목록의 주기사항에는 목록상 무시되어도 좋은 항목들이 너무 많이 기재되는데 업무상 시간을 절약하고, 목록의 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상당히 형식적인 기재가 많은데 목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V. 結 論

古書目錄規則에다 ISBD의 방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각종 고서목록규칙과 소장고서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시정이 불가피한 곳이 많았다. 古書는 書誌의으로 특기할만 한 것이 많은데, 고서목록에서는 그것을 적당한 위치에 기재하여 왔기 때문에 ISBD의 방법을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ISBD는 지정된 각 사항에 선행된 부호가 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고서목록상 중요시되는 版本과 版式이다.

판본은 권차사항, 출판사항의 맨 마지막, 대조사항의 권책수 다음에 기재하여 왔으나 版次事項으로 통일되지 못하여 先行符號를 줄 수 없기 때문에 註記事項으로 돌렸다. 만약 版本을 版次事項에 기재한다고 해도 그

것이 정확하게 版次와 일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ISBD의 版次事項에서 사용하는 記符 “-”을 부여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래서 版本을 註記事項으로 돌리되 重要視하여 맨 앞에 기재하였다.

版式 역시 古書目録에만 있는 현상이므로 先行符號를 줄 수 없기 때문에 註記事項에 기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版式은 版本과 마찬가지로 중요시되며 그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古書의 識別에 있어서 분리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版本과 同一註記로 하되 그 뒤에 이어서 기재하였다.

이와같은 방법을 취한 것은 古書目録規則도 一般目録規則처럼 ISBD의 방법을 좇아서 目録의 統一性을 기하자는 것이다. 同一 資料로서 古書目録規則과 一般目録規則에서 基本記入의 選定이 다른 것은 많이 사용되는 쪽의 방법을 좇으면 못할 것이다. 記述事項도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많으므로 樣式을 통일하여 一般目録規則과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古書目録의 일반적인 결함은 例外的인 規定을 많이 두고, 目録上 별로 필요치도 않는 사항을 번잡하게 기재하는 점인데 역시 시정하여 一般圖書目録과 統一性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提示한 方法에 의하여 基本記入目録을 作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예) 김 성일

鶴峰先生文集/金誠一(朝鮮)著.

- 晉州: 臨川書院, 哲宗 2 (1851)

12 卷 10 冊: 32.3 × 20.5 cm.

木板本, 四周雙邊, 半部 20 × 15.9 cm.

界, 半葉 10 行 × 19 字, 上下內向 2 葉

花紋魚尾.

---

Direction of Cataloging  
the Oriental Classics

Chi Woo Kim\*

(Abstract)

All things considered, cataloging rules of every nations in the world had been revised or attempt to revise according to the ISBD cataloging method. This is a general tendency of cataloging rules in nowadays.

But, for the application to ISBD cataloging method to in the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classics, there are many bottleneck because special articles of bibliography in the oriental classics frequently appeared, the special article has been recorded to suitably location in the body of entry. If special articles have apply to ISBD cataloging method, it must given to peculiar mark in the every article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location for entry to material form of printed letter and form of printed book. Generally, material form of printed letter have been recorded in the article of edition, form of printed book have been recorded in the article of collation. But, as these method have not regulated in the general cataloging rules of Korea, material form of printed letter and form of printed book articles must record in article of note for application to ISBD cataloging method.

If that happens, fundamentally problems which have been hotly debated in cataloging rules for oriental classics will be naturally solve. In the edded, I was presented the solution method of accompanying problems in this thesis.

---

\* Assistant Professor, Pusan Womans College